

## 8. 국고 및 증권

###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sup>178)</sup>에 맞추어 처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sup>179)</sup>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22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595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2,240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을 통해 국고

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당좌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중 국고금 총 지급규모는 2,826조 원에 해당한다.

표 II - 24. 국고금 수납 및 지급

	2020	2021(A)	2022(B)	증감(B-A)
총수납	2,077	2,650	2,836	186
국고대리점 등 수납	448	517	595	78
한국은행 수납 <sup>1)</sup>	1,629	2,133	2,240	107
총지급 <sup>1)</sup>	2,071	2,625	2,826	201

주: 1) 국고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국고계정 간 대체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sup>180)</sup>. 2022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539개로 293개 감소한 반면,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563조 원으로 71조 원 증가하였다.

178) 우리나라는 정부 회계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에 따른 계리만 수행하고 있다.

179) 2008년부터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을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80) 국고수납대리점이란 은행 영업점을, 국고금수납점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원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영업점 및 카카오�뱅크를 말한다.

표 II - 25. 국고대리점 현황<sup>1)</sup>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21(A)	2022(B)	증감(B-A)
개수	수납대리점	6,292(22)	5,940(22)	-352
	수납점	10,540(7)	10,599(7)	59
	계	16,832(23)	16,539(23)	-293
수납 금액	수납대리점	469	539	70
	수납점	23	24	1
	계	492	563	71

주: 1) ( ) 내는 대상금융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sup>181)</sup>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2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8.2만 건 및 2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 16.3% 증가하였다.

표 II - 26.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천 건, 조 원, %)

		2021	2022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8.2	43.4	-9.9
	일괄 처리	395.3	438.5	10.9
	(국고금 수납)	327.2	364.1	11.3
	(국세 환급)	68.2	74.4	9.1
	계	443.5	481.9	8.7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9.4	22.6	16.2
	일괄 처리	2.4	2.8	17.4
	(국고금 수납)	2.1	2.4	16.4
	(국세 환급)	0.3	0.4	23.1
	계	21.8	25.4	16.3

자료: 한국은행

##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2년 한도는 50조 원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 - 27.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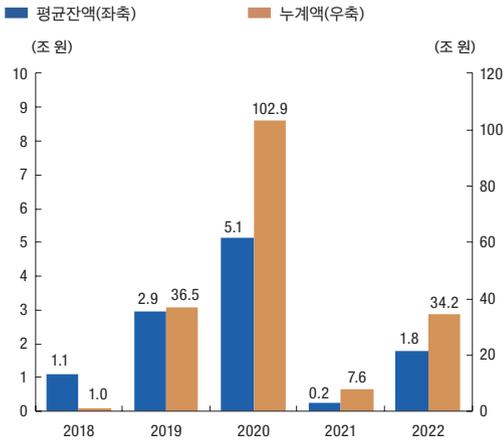
	2021(A)	2022(B)	증감(B-A)
통합계정	40,000	4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계	50,000	50,000	-

자료: 한국은행

2022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1.8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6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7.6조 원에서 34.2조 원으로 26.6조 원 증가하였다.

181)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그림 II - 26. 대정부 일시대출 평균잔액 및 누계액



자료: 한국은행

## 나. 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중 국고채권<sup>182)</sup>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168.6조 원이 발행되고 74.8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22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937.5조 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증권<sup>183)</sup>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중 16.3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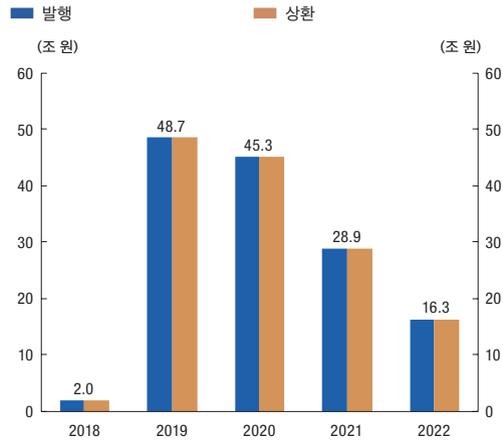
표 II - 28.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조 원)

국고채권	2021년	2022년 중		2022년
	말 잔액	발행	상환	말 잔액
국고채권	843.7	168.6	74.8	937.5
2년	12.5	15.2	0.5	27.2
3년	82.3	30.3	30.6	82.0
5년	117.7	30.1	24.9	122.9
10년	264.6	31.5	17.5	278.5
20년	145.3	10.2	1.4	154.1
30년	205.9	47.1	-	253.0
50년	15.4	4.3	-	19.7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 - 27.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sup>184)</sup>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6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182)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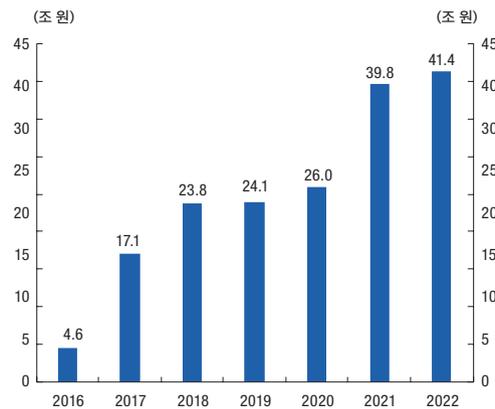
183)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184)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등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투자 중인 41.4조 원 규모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협의<sup>185)</sup>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림 II - 28.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다. 기금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sup>186)</sup>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250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다. 용자계정은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4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용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대외 원리금상환이 2016년 종료되었으며 전대차관 회수 업무도 2022년 말 종료되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연중 7.1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표 II - 29.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li> <li>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li> <li>차관계정: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관리</li> </ul>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 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

자료: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266억 원 및 한국은행 출연금 266억 원 등으로 532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sup>187)</sup>. 2022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3만 3천 가구이다.

185)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86)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말한다.

187) 저축만기 시 저축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 수준이다.

한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  
유자금을 RP,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  
용하고 있다.

표 II - 30. 기금 조달(운용) 현황

(십억 원)

	2021(A)	2022(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계 정	267,466	249,984	-17,482
용 자 계 정	445	422	-23
차 관 계 정	344	352	8
공적자금상환기금	7,098	7,108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68	53	-15

자료: 한국은행